

광주 남구 원산이동마을 ‘에너지 자립형 2호’ 박차

최근 경로당 태양광 축조안 의회 통과
10kW 설비 구축...‘자가용 PPA’ 운영
신효천마을 성공 바탕 전체 확대 계획
區 “정부 햇빛소득마을 공모 등 최선”

광주 남구 원산이동마을이 관내 신효천마을에 이어 ‘에너지 자립형’ 마을 2호로 거듭났다. 2일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319회 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산이동 경로당 연구시설물(태양광발전설비) 축조 동의안’이 통과됐다.

남구 탄소중립과가 제출한 해당 안건의 골자는 마을 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남구가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위 10% 이내인 A등급을 받으면서 국비 등 필요 재원을 확보해 추진했다. 태양광 설비 운영·관리 주체는 원산이동마을 자치회다. 운영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경로당에 먼저 활용하고 잉여분을 한전에 판매하는 ‘자가용 PPA (Private Power Purchase Agreement)’ 방식으로 이뤄진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원산이동경로당 옥상 임대 기간은 최초 10년이며 부적합 사유가 없다면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공사 일정과 투입 예산 등 추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발전량 시스템은 10kW 수준으로 예정됐다. 이 정도면 한 달 동안 약 1천~1천20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일반 가정의 월평균 사용량 300~400kW를 훌쩍 넘어 실질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금은 마을 발전 기금 등으로 활용돼 현재 원산이동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65세대·105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주민 소득형 태양광 모델은 행암동 신

효천마을에서 먼저 추진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선정된 남구는 2021년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에 힘입어 신효천마을에 거주하는 67가구에 3kW 시스템을 각각 설치했다.

2024년부터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수익형 공용 발전소’도 운영했는데, 지난해에는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내 주민 복지 기금 등으로 활용됐다.

이 외에도 신효천마을은 지난해 말 기준 소비량의 73%가량이 자체 생산한 전력으로 대체하면서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남구는 신효천마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원산이동마을 전체가 에너지 자립마을로 이

수 있도록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하며 재원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김진옥 문화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원산이동마을이 남구만의 에너지 자립 마을 2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 부지를 발굴해 정부 주관 ‘햇빛소득마을’ 선정에도 도전하는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최근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형우기자

3천억대 불법 환치기 3인조 적발

광주본부세관, 귀화 베트남인 송치
해의 도피 주범 2인 지명수배 조치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3년간 3천억대 불법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베트남 조직’이 당국에 적발됐다.

2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를 받는 귀화한 베트남인 A(30대·여)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본부세관은 A씨와 함께 환치기를 한 베트남인 B(30대) C(40대·여)씨에 대해선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 영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3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들이 환치기한 규모는 총 3천10억원 상당, 횡수는 3만6천회 이상으로 조사됐다.

주범 격인 B·C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A씨에

게 매월 50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은 통장과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으로 비인가 금융거래를 해왔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자산을 국내로 전송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시세 차익까지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주범들이 얻은 범죄 수익은 역대 이상이라는 게 광주본부세관의 설명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베트남으로 출국한 B·C씨를 검거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환치기 이용자들이 대해선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인재영기자



찾아가는 디지털기기 체험교육 광주 남구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디지털기기 체험교육’이 2일 오후 남구 원산5동 경로당에서 열린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키오스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체험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아들 훈육하다 흥기로 찢른 뺨입건

진로 문제로 훈계하던 중학생 아들에게 흥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A(40대·여)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2분께 북구 운암동 소재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10대)군의 등을 흥기로 1차례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0.5cm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소방 당국에 신고한 A씨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진로 문제로 갈등을 빚은 B군을 훈육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윤찬용기자

고졸 中 유학생 112명 호남대 편입 적발 ‘파장’

‘가짜 미 대학 졸업장’ 입학
현재 대부분 본국 귀국해
출입국사무소, 강제수사

고졸 학력의 중국인 유학생 112명이 인가가 취소된 미국 대학의 졸업장으로 호남대에 편입한 정황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혹을 받는 유학생 112명은 중국 현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어학연수생 자격(D-4·일반연수 비

자)으로 지난해 3월 입학했다. 호남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이들은 입학 5개월 후인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학위증을 첨부해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해 대학에 편입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의 검토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위증이라고 제출한 미국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에 인가가 취소된 곳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월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섰다.

출입국 당국은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같은 대학에서 학위증을 받은 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단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판단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편입 대상인 유학생들은 압수수색 직후 한꺼번에 중국으로 귀국했다.

당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했고, 기존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추가로 적발해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호남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해 당국에 제출했을 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며 “서류를 검증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1월에 중국에 귀국한 것은 방학을 맞아 간 것이며, 해당 학생들은 휴학처리가 돼 있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부연했다. /박선욱기자

광주출입국사무소, ‘고흥 계절근로자’ 브로커 압수수색

최근 고흥 소재 굴 양식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 고용’ 브로커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0대)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고흥 굴 양식장에서 노동 착취 피해를 입었다는 이주 노동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출입국사무소는 분석 작업을 거쳐 불법 고용 알선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출입국사무소는 3일부터 관할 지역 내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문 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등록을 위해 광주로 이동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인재영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